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3)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9강 위대한 거지들의 공동체

바로 그 기원절사에 모인 사람들이 1250명, 굉장한 식구이다. 이들이 이제 탁발을 나간다. 당시는 지금의 절처럼 공양간이 있어 식사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탁발에 의존했다. 초가에 붓다는 '한 곳에서 사흘을 머물지 말고, 밥을 빌어먹으며, 아무 것도 소유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순서대로 일곱 집안가를 두드려 강통을 내밀었고, 거기 담긴 것만 나누어 먹었다. 거지들의 위대한 공동체, 그것이 초기 승가였다.

소유

지금 여기서는 일정한 거주지에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음식은 여전히 탁발에 의존했고, 소유는 아직까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지금도 발우라고 부르는 밥그릇, 가사 한 벌, 그리고 머리를 미는 삭도와 바늘 정도가 허락된 소유물이었다. 그러나 점점 이 엄격한 규율은 완화되고 유연해졌다. 붓다 사후 일정한 시기 이후 소집되었던 이른바 '결집(結集)'은, 붓다의 교설을 수집하고 확정하겠다는 교리적 필요에 의한 것이기는 했지만, 또 다른 중요

한 이슈는 바로 '계율'에 관한 것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일정한 거주지를 찾게 되었고, 또 재가에서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복을 비는 마음에서 스님들을 초대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보니, 초기의 엄격한 계율을 그대로 지키기 어려웠다. 소유도 그랬다. 이 점은 기독교의 사경과 비슷하다. <장미의 이름>에는 중세의 주요 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소유에 관한 것이었다. 불교도 대응으로 발전하면서 세속과의 유대를 강화하다 보니 소유의 제한 또한 느슨해졌다.

탁발

붓다는 식사 때가 되자, 그 많은 무리를 이끌고 변화한 도시로 밥을 빌러 나갔다. 집집마다 순서대로 돈 다음, 그 음식물을 들고, 기원정사로 돌아와 밥그릇을 씻다. 각각의 보따리를 펼쳐 놓고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자니, 좀 외람되지만, 중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도시락 먹는 풍경이나, 좀 더 죄송스럽지만, 다리 밑의 거지들이 수확물들을 펼쳐 놓고 먹는 광경과 별로 다를 바 없다. 둘의 차이는 어디 있

는가. 그 삶을 대하는 태도일 것이다. 붓다의 무리들은 당당했을 것이고, 거지들은 아무래도 비굴하기 쉽다. 전자는 스스로 선택했고, 후자는 운명이 그러한 측면이 많아서 그럴 것이다.

판건은 역시 '마음'에 있다. 같은 일인 듯해도, 어떤 태도와 풍기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영향은 천지천역이다. 식사가 끝나면, 다들 웃고 그릇을 수습하고, 밥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는다. 웃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그런 어려움의 흔적을 읽을 수 없다. 흡사, 좋은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우아하게 마치고 나온 듯한 깔끔하고 정갈한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그게 불교 훈련의 힘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일상

<금강경>의 이 첫 장은 아무 특별한 것이 없다. 그저 붓다가 거처를 떠나 탁발을 했고, 돌아와 식사를 했으며, 그런 다음 의

도가 무엇이나고 문자, 조주는 "차 한 잔 들라"고 했고, 밥을 먹었다는 제자에게는 "그럼, 가서 그릇을 씻어야지"라고 했다. 여기 아무 것도 숨긴 것이 없다. 어떤 숨겨진 뜻이나 신비적인 통찰을 담고 있지 않다. 일상(日常)이 곧 성사(聖事)이다.

우리가 붓다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붓다처럼 우리도 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고, 학교로 나서며, 일을 마치고 돌아온다. 그리고 저녁 가족과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차

게 '무엇인가 특별하고 남다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이렇다면, 신통력 같은 것, 즉 수련이 깊어지면, 공중 부양을 하거나, 남의 속내를 알아맞히거나, 또는 미래를 예언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붓다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없다. 혹, 있다 해도 하찮거나 위험하다.

하찮다는 것은 붓다가 어느 날, 평생을 걸려 이제 예수처럼 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게 되었다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공에게 건네는 동전 한 닢이면 건널 수 있는 것을, 그토록 죽자고 고생을 했던 말이오." 위험하다는 것은 수련, 특히 정신적 수련이 길을 잘못 들면, 자신도 망치고 남을 망치기 십상이라는 뜻에서이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 마음을 비우려 했는데, 우주를 팔아먹을 기대와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금강경>이 가르치는 중심은 '법(法)도 또한 공(空)하다'로 요약할 수 있다. 육조 해능은 사상(四相)을 경계하면서, 진리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접고, 평상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대를 접는다. 육조 해능의 용어를 빌리자면 회망심(希望心)을 접어야, 즉 일체의 지배와 공격성을 괄호칠 줄 알아야, 마음이 본래 공(空)함을 볼 수 있다. 거기서 전부이다. 그 마음의 빈 자리 만큼,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요의(饒益)될 방법을 찾는 마음이 열려간다.

그 곡절을 지금의 정경이 아름답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이 격의의 '소식'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말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2장이 계속된다. 그냥 보여주어도 모른다. 이런 번거로운 '문답'을 거칠 수밖에 없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새가 울고, 설법은 이미 끝났다



발을 정리하고 자리를 펴고 다시 앉은 정경을 그려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 정경에 이미 법이 다 설해졌다! 불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과 기거를 분별이나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붓다는 그렇게 살고 있다. 여기서 붓다는 불법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다. 선사들의 대화도 이 지점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때가 되면 잡자리에 든다.

신통

무엇이 다른가. 겉으로는 다른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다만, 다르다면, 안의 풍경이 좀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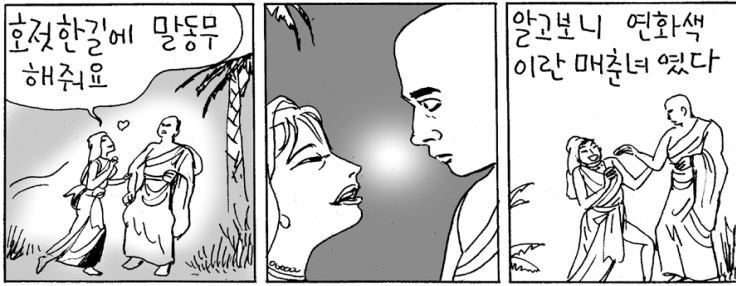
붓다의 마음은 이렇다면 '비어있다(空)'. 비어있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붓다에

주장사파라...

목갈라야나 존자와 연화색



조태호



목갈라야나 존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중 한 사람. '목건련'이라 불리며 신통제일로 꼽힘.

네티즌 교리문답

가책이란 말이 불교용어인가요?

사람들은 잘못을 고하고 응분의 벌을 받기 전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책이란 말이 불교용어라고 하더군요. 어디서 이 말이 나왔고 불교적인 의미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반성)

답1: 가책이란 말은 계율제정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불교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것은 가책 받을 일이다" 등으로 쓰는 가책(阿責)과 '몹시 꾸짖음'의 뜻인 가책(責)입니다. 앞의 가책(阿責)은 불교에서 나온 단어로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 대중스님 앞에서 죄를 낱날이 고하고 응분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불교의 계율을 집대성한 율장 중에 <사분율(四分律)>이 있습니다. 불교의 계율이 제정되는 데에는 수범수제(毘尼)라는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율을 정한 것입니다. <사분율>은 누가 무엇을 저지름으로써 어떤 계율이 제정되었다는 상황을 수록하고 있어 부처님 당시 제자들의 행적과 사회 형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지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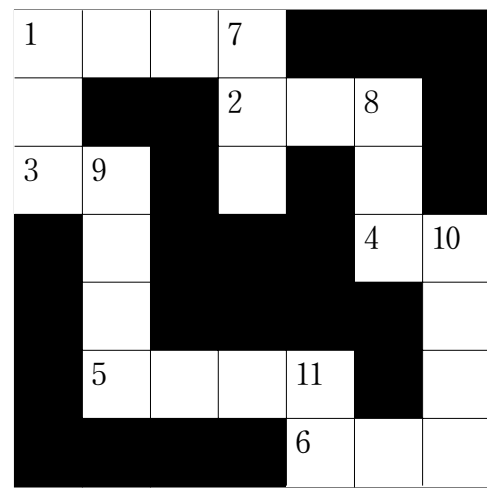
답2: <사분율> 44권에 '가책건도(阿責건도)'가 있어서 가책 받을 일에 대한 초기 불교의 기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지혜라는 비구와 노혜라는 두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싸우기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는 곳에 그들이 가기만 하면 이내 싸움판이 벌어졌습다.

이런 그들의 비행에 분개한 청정비구들이 참다못해 부처님께 그 사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비구대중을 비상소집하고 두 비구를 가책하는 법과 가책 받은 비구의 권리 박탈법위를 조목조목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가책하기 위해서 먼저 대중을 소집합니다. 이어 잘못된 사람의 행위를 드러내 알리고 드러난 비행은 본인과 대중들이 기억하도록 하지요. 기억이 되었다고 확인되면 죄에 따른 벌을 줍니다.

요즘에는 다만 양심의 가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책은 스스로의 양심에 맡겨져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직장인의 경우 동료와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응분의 징계조치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책의 기본정신은 유지되고 있는 셈이지요. (계율)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정답은 19면에

상식퍼즐

가로

- 1. 신라시대 대국 통이라는 벼슬에 추대되어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울 것을 건의한 스님 2. 본식 구외에 덧붙여 사는 식구 3. 호수나 급류의 하천에서 정수가 빠른 배를 노로 저어 속도를 경쟁하는 경기 4.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에게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일, 백일 5. 나유타의 1만배, 무량수의 1만분의 1이 되는 수 6.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세로

- 1. 부처님의 전생을 묘사한 설화 7. 동양화에서, 매화·난초·국화·대나무를 소재로 하여 그린 묵화 8. 기원전 1만 년 전의 선사시대로 돌을 깨뜨려 도구를 만들어 쓰는 시대 9. 솜을 얇게 두어 누빈 이불 10. 중국 당나라 계율종 남산파의 개조로 남산 율사라고도 함 11. 의로운 일을 위하여 일으키는 용기.